

# 第52回 發明教室

6月 11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6月 11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52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株)진영윌드 姜亨權 회장과 美都…○
- …物產 鄭憲雲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
- …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金顯壽 記〉…○

## 가방 發明界의 代父

### 美都物產 鄭 憲 雲 사장

핸드백의 代名詞로 통하는 「미도 핸드백」을 誕生시킨 美都物產 鄭憲雲 사장.

그동안 수많은 핸드백이 선보여 조금씩 잊혀졌던 미도핸드백의 發明人 鄭사장은 우리나라 가방 發明界의 代父답게 60여건의 工業所有權을 획득, 아직도 健在함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85년부터 선보인 學生用 탁틴가방은 國內 最初로 人體工學까지 적용했다.

『저는 23세의 나이로 미도핸드백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40대 이상 女性이라면 미도핸드백을 記憶하고 계실겁니다. 저의 미도핸드백은 全國적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만큼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物件은 엄청나게 팔렸지만 經營과 管理가 부실해 길바닥에 돈을 뿌리듯 했으니 아무리 天下의 名品이라도 당해 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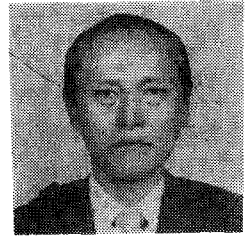
미도핸드백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듯 높아지자 각종 유사품이 쏟아져 나와 이를 防止하기위해 工業所

有權에 관심을 갖은 것이 60여건의 權利를 갖게 되었다는 鄭사장 설명.

鄭사장은 미도핸드백에 이어 1978년 비닐쇼핑백을 發明했다. 이번에는 特許를 얻고 本格的인 販賣을 시작했다. 백화점 쇼핑백·화장품 회사 비치백·대기업을 판촉물등 國內 전체 수요의 50%가 넘는 物量을 納品하였으나 유사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짝잘한 재미를 보았다. 이때부터 工業所有權 出願은 활기를 띄었고, 그 管理에도 만전을 기했다.

탁틴가방을 發明한 것은 지난 85년. 학생들이 가방에 붙어있는 최장식물에 다치고, 또 가방이 무거워 절절 매는 것을 보고 쇠를 쓰지 않은 가벼운 가방의 發明을 결심했다. 鄭사장은 특히 가방을 사용하는 대상이 자라나는 어린이라는데 人體工學까지 적용했다. 그는 한번 發明에 몰두했다하면 침식까지 잊곤 한다. 탁틴가방 發明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하여 誕生한 탁틴가방은



〈鄭憲雲 사장〉

기존가방 무게 1.2kg을 0.5kg으로 (소형은 0.2kg)줄였고, 똑같은 크기에 두개의 주머니까지 달려있다.

특히 人體工學을 적용하여 가방을 매었을때 등뼈에 닿는 부분은 쿠션 스펀지를 사용하여 전혀 부담이 없으며, 멜빵조정을 멘상태에서 가능하고, 모서리를 등글게 처리하여 다칠 염려가 없고, 지퍼를 사용하여 가방을 열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鄭憲雲사장. 그는 탁틴가방과 함께 다용도 가방·冷蔵가방·書類가방·돛자리겸 쇼핑백등이 날개돋힌듯 팔려 發明企業人으로서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 <☞>